



시간여행 시즌 II
남도, 시간속을 걷다

〈5〉 1946년 미영스튜디오

70년 세월을 지켜온
추억의 사진관



▶미영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조한범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영사’ 전통 이어... 전성기땐 제주까지 납품
목포 첫 자동인화기 구입... 1980~90년대 활황
연봉 5천만원에 아파트 제공 영입 기사 등 직원만 9명
장수사진 할인... “고객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어요”



◀‘미영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7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미영스튜디오’.

사진관에 앉아 주인 조한범(66)씨와 인터뷰를 하는데 20대 초반 젊은이가 들어왔다. 사진 촬영을 하겠다는 그에게 주인장이 용도를 물었다. 여권이나 이력서에 넣을 사진인가 싶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좀 의외였다.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인데요.” 청년의 말을 듣고 “아, 여기가 목포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관이 문을 연 70년 세월 동안 ‘바다’로 나가 삶을 이어가려는 수많은 선원들이 이 곳에서 사진을 찍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을 터였다. 목포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미영스튜디오’의 원래 이름은 미영사였다. 올해 문을 연지 71년째로 처음 ‘그자리’ 그대로다. 일본식 가옥이었던 건물이 40여년 전 5층짜리 건물로 바뀌었을 뿐이다. 미영사는 초창기 후지, 코닥 등 필름을 비

롯한 사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사진 촬영도 함께 했다. 흥도 등 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 슈퍼마켓에서도 필름을 판매하던 시절엔 매출이 어마어마했고 제주도까지 물건을 납품했다. 본사에서 미영사를 ‘호남 지역 보충 수표’로 불렀다. 섬마을에 다니며 사진을 찍어주는 일도 많았다. 섬사람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모습을 영글에 담았다. 나이 든 섬 사람들 중에는 ‘사진은 무조건 미영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미영사의 원래 주인은 김호중씨였다. 조씨는 39년 전 그에게서 가게를 이어받았다. 첫 만남은 ‘악연’에서 시작됐지만 결과는 ‘행운’이었다. 조씨는 당시 목포 2호 광장에서 ‘아름사’를 운영중이었다. 누군가 조씨가 김씨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다며 음해를 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에 만남이 이뤄졌다. “선착장 뒷집에서 만났죠. 회 한 접시가 3000원 하던 시절이었죠. 어르신은 거래처에는 열선도 하지 않았다고,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당신 사진관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고요. 대를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자식들이 서울대 출신으로 다 제일을 하고 있어 마땅히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셔서 고민중이셨나 봅니다.” “자네가 인수하소라는 말과 함께 가게 이름까지 그대로 물려준 김씨를 그는 지금도 은인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90년대는 활황이었다. 특히 목포에서 처음으로 자동 인화기를 구입했던 1980년대 초는 최전성기였다. 많을 땐 하루에 2만 2000장을 인화하기도 했고, 평균 5000장이 넘었다. 한창 때는 직원을 9명까지 뒀다. 광주에서 유명한 사진 기사를 연봉 5000만원과 거주 할 아파트까지 제공한 후 모셔오기도 했다. 디지털 카

메라의 등장 등으로 사진관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한 때 목포에 100여개 넘었던 사진관은 이제 30여개 정도 남았다. 미영스튜디오 역시 직원을 줄여야 했다. 사진을 전공한 아들과 둘이서 운영을 하던 기간을 거쳐 2년 전부터는 혼자 사진관을 지고 있다. 학교 앨범 작업 등을 할 때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들이 함께 작업한다. 4층까지 스튜디오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기 사진 촬영을 접으면서 1층과 2층만 사용하고 있다. 단골 손님들은 언제나 반갑다. 백일 사진을 찍었던 이들이 이제는 결혼해 아이들을 데려와 다시 가족 사진을 찍는다. 지난 설날 연휴기간, 스무 가족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곳에 오래 있다보니 가족처럼 느껴 어려운 부탁을 하는 이도 있다. “언젠가 가족 사진을 찍은 분이 오셔서 며느리 사진을 파달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사진에 찍힌 세 아이들에게는 이 엄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고, 잠시 기다려보자고요. 얼마 후 엄마는 다시 돌아왔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웃음)” 흑백필름, 컬러, 디지털 시대를 모두 아우른 그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날 70대 할머니가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정리하러 왔을 때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조씨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사진관에 백두산 천지와 목포 전경 등 그가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33년전 찍은 목포 전경 사진은 지금까지 6000만여원이가 팔린 히트작이다. 삼학도에서 바라본 목포 시내 전경을 담은 와이드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남긴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했고 목포 지역 가게들이 개업할 때면 많이 사간다. 조씨는 지난해 개업 70년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행사를 진행했다. 60~10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진에 대해 50% 할인 행사를 열었고 올해는 70~100세 어르신 영정 사진을 50% 할인하고 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조씨는 “좋은 인연을 만나 오랫동안 사진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작은 부분이나마 고객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재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재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문화 육성/골프꿈나무 지원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글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직원모집: 객실청소, 주방청소 (숙퇴근 및 숙제가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